

要諦二, 敬에 對한 研究

林 泳 暢*

目 次

序言(서언)	
I. 무엇을 경(敬)이라 하는가.	5. 한국 고전 속의 경사상
1. 경의 글자 뜻(字意)	III. 종교계에서 본 경사상
2. 경으로 이루어진 말들(語彙)	1. 천도교의(天道敎義)의 경사상
3. 경에 대한 개념(概念)	2. 대순진리(大巡眞理)의 경사상
II. 고전(古典)에 나타난 경사상	IV. 오늘의 시대상과 경사상
1. 논어(論語) 속의 경사상	1. 역(逆) 장유유서의 시대
2. 맹자(孟子) 속의 경사상	2. 경사상의 보급과 교육
3. 중용(中庸) 속의 경사상	3. 오늘의 시대상과 경사상
4. 대학(大學) 속의 경사상	결어(結語)

서 언(序言)

한국의 동·리(洞·里)마다 또는 현대식 취락(聚落)인 아파트마다에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경로당(敬老堂)'이란 건물 또는 옥사(屋舍)를 필수적(必須的)으로 건립(建立)해있다. 또 전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면 경로석(敬老席)이라고 특별히 구별한 자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한 '경로우대증'이란 것이 있어서 중급(中級)차량의 혜택과 공원, 유원지의 입장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논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노인을 공경, 존경한다는 경(敬)에 대

* 前 경남대 교수, 종교학 박사

한 고구(考究) 그것이니 아직도 우리사회에 이런 글자들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 게시한 간판은 아직 못 봤지만 敬의 뜻을 가진 말이 없는 영어로는 경로당이 기껏 늙은이의 집 또는 방 oldmen's house(room))이라고 직역이 되든지 노인전용휴게실 휴게실(recess 또는 rest house나 room)으로나 써 붙일 것이다. 그리고 敬이란 글자도 존경, 경의의 뜻으로 respect라는 유사한 개념의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동양의 학문과 그에 따른 글자가 정신이 앞선 위치에서 성립된 반면 서구의 그것은 현실적 물질적인 것이 위주가 되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허다하겠지만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상 실천하는 요체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리만큼 중요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경(敬)이다.

21 신천년의 신세기를 맞는 오늘과 또 내일을 바라볼 때 본고의 주제가 되는 경(敬)의 윤리가 소멸되는 감이 없지 않으니 먼저 기우(杞憂)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젊은애들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고 하는 소리는 1세기전 개화초기, 일본에 병탄(倂呑)되던 때부터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친부(親父)가 바로 원한의 적(的)이 되고 나라 가운데 늙은이들은 모두 노후물(老朽物)의 폐기품(廢棄品) 쓰레기시(視)당하는 판이니 여기에 공경 존경은 고사하고 일말(一沫)의 경의(敬意)도 표하지 못하는 것이 당금의 사회적 양상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1세기전 개화사상이 그랬으며 반세기전 해방과 또 남북전쟁과 함께 들어온 서구식 문화 그 자체에 경(敬)이란 개념의 말조차가 확실히 없었으니 역사의 흐름에 따른 개변(改變)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차나 버스를 탔을 때 공손하게 자리를 양보하는 청소년이 없지 않아 외국인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 전통 있는 문화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꽃 좋고 열매가 많으리라 자위되는 바가 없지도 않다.

I. 무엇을 경(敬)이라 하는가.

1. 경(敬)의 글자뜻 [字義]

무엇을 경(敬)이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면 대개는 사전적 해석의 글자 뜻 [字義]으로서 공경(恭敬)하는 것, 삼가히 [謹] 하는 것, 엄숙히 [肅] 하는 것, 놀라는 [驚] 것 등이다.

첫째 공경한다는 공(恭)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가위 대표격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누구에게 절하는 것을 배배(拜拜)나 배례(拜禮)라고 하는 반면 그것을 공손하게 하는 것을 경배(敬拜)라고 하는 것이니 이때의 경(敬)자가 주는 공경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둘째 엄숙하게 숙연(肅然)히 하는 말들에서 몸과 마음이 흐트림없이라는 뜻이 되는데 남의 말을 듣고서 경청(敬聽)했다고 하는 말이나 숙청(肅聽)했다고 하는 말의 뜻이 한 유(類)가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삼가히 한다는 근(謹)의 뜻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편지 서두(序頭)에 쓰는 경계(敬啓)나 근계(謹啓)가 다 같이 삼가히 글월을 연다(쓰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편지 처음에는 이런 말 말고도 숙계(肅啓)나 배계(拜啓)나 하고 쓸수도 있는데 다만 손아래 사람에게는 경·숙·근 등을 쓰지 않고 그저 계(啓)자 한자나 또는 계자(啓者)라고만 하면 된다.

넷째 경(敬)에 놀란다(驚)는 뜻이 있다는 것을 필자도 이 원고를 쓰면서 처음 안 것이다. 그러나 한자에 음이 같으면 혼동해서 쓰는 예가 허다한데 예를 들면 欲-慾 臺灣-台灣 惠-蕙 工夫-功夫 侄-姪 年-季 四-肆 六-陸 八-捌 등 그밖에도 너무 많다. 그러니 고인(古人)이 경계한다는 것을 경(敬)자로 쓴 예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추리(推理)일 뿐 놀라워한다, 놀랍게 여긴다는 자의로 숙경(肅驚)이라고 자전(字典) 풀이에 나와 있으니 위의 추리는 쓸데없는 자류(自流)의 추측인 것 같다.

2. 경(敬)으로 이루어진 말들 [語彙]

경(敬)자가 합성된 숙어(熟語)를 통해서 경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며 또 꼭 필요하기도 한 일이다

먼저 경(敬)자가 위에 놓인 말들을 찾아본다.

경신(敬神) 신(神)을 공경 경배함.
경천(敬天) 하늘을 공경 경배함.
경충(敬忠) 임금을 공경 충성함.
경친(敬親) 부모에게 공경함.
경로(敬老) 노인을 공경 존경함.
경건(敬虔) 삼가히 몸을 낮춤.
경공(敬恭) 삼가하여 공손함.
경신(敬慎) 공경하여 삼감.
경승(敬承) 삼가히 뜻을 받들.
경순(敬順) 삼가히 뜻에 순종함.
경애(敬愛) 공경하여 사랑함.
경구(敬懼) 삼가 가까이 하지 않음.
경백(敬白) 삼가 말씀을 드림.
경복(敬服) 삼가 뜻을 승복함.
경중(敬重) 공경하여 존중함.
경외(敬畏) 삼가 두려워함.
경원(敬遠) 삼가하여 가까이 하지 않음.

여기에 한가지 경원(敬遠, 敬懼란 말도 같음)은 신(神)에게 대한 존경감으로 공경은 하되 멀리함으로써 가까이 하여 독신(瀆神)하지 않는 뜻으로 쓴 논어(論語) 웅야(雍也)에 있는 말이다.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 하라(敬鬼神而遠之)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일반이 쓰는 것은 겉으로는 존경하는 듯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오용(誤用)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들에도 역시 공경하여 공손히 하고 삼가서 엄숙하게 하는 자의(字義)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敬자가 아래 붙는 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어휘(語彙)들을 생략하고도 다음과 같이 많은 문자의 조합이 있다.

제1류 : 공경(恭敬) 충경(忠敬) 효경(孝敬) 장경(莊敬) 숙경(肅敬)

제2류 : 존경(尊敬) 근경(謹敬) 속경(肅敬) 화경(和敬) 흠경(欽敬) 독경(篤
慶) 구경(久敬) 추경(推敬) 중경(重敬)

제3류 : 배경(拜敬) 거경(居敬) 탄경(誕敬) 송경(送敬) 표경(表敬)

제4류 : 순경(瞬敬) 은경(隱敬)

제5류 : 불경(不敬) 실경(失敬)

이 낱말들의 뜻을 일일이 밝히는 것을 지면관계로 생략하지만 글자를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오래 오래 두고서의 존경감을 지니는 구경(久敬)의 경우도 있는 반면에 늘상 그렇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존경감을 느끼는 순경(瞬敬)이 있다.

또 경의(敬意)를 겉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표경(表敬)이란 말이 있는 것과 함께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은연(隱然)하게 존경감을 가지는 은경(隱敬)이 있는 것을 봐서 인류문화에 한자(漢字)와 같은 동양의 문자가 있었다는 것에 신비감조차 느끼는 자긍(自矜)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배우고 쓰기에 불편하고 기계화 정보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과는 다른 차원의 의견일 뿐이다.)

여기에 대순진리회가 펴낸 요람 가운데 3요체 경(敬)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기로 한다.

경(敬)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고 한 것인데 심신의 움직임 가운데서의 일신상 예의(禮儀)를 알맞게 행하는 것이 경(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책자의 요람은 글자 그대로 요람이기 때문에 중언부언(重言復言)의 번쇄한 말을 피하고 그저 일반이 알기 쉬운 경의 개념으로 예와 의(禮儀)를 들어서 말한 것이기는 해도 상당히 온축(蘊蓄)있는 해설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설에서 말하듯 경(敬)이란 곧 예(禮)가 있는 행동으로서 표현되는 것인 바 공자의 제자 가운데 72인을 들어서 6예(六禮)에 통한 이로 규정하여 그의 문도(門徒)로 규정한 기준이 있다.

弟子三千 身通六藝者七十二人(제자가 3천명인데 그 가운데 몸에 6예를 통한 이가 72명이다.)¹⁾

그 6예란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의 여섯가지니 고대에는 다른 이름 6경(六經)이라고 해서 숭상한 것인데 그 첫째가 바로 예(禮)인 것을 봐도 예의 수양 수련상의 위상이 어떠했던가를 넉넉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오늘의 세상에 다시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은 오늘의 세상이 너무 예와 의(禮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따져보면 오늘의 인간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옛말로 하자면 천지의 운도(運度)가 또 불교로 말하면 3세(과거·현재·미래)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기는 과거의 유교적 의례 의식이 그 정신보다도 현실적 형식적면에 흘렀고 또 명분론(名分論)에 빠져서 요람에서 지적한 바 경(敬)을 성취하기는 고사하고 그 본질의 경사상을 도로 훼손하는 양상을 정시(呈示)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부터 그랬었다. 을유년 해방부터가 연합국 승리의 결과였으니 자연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경제, 문화, 교육등 더 넓게는 생활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모든 의식은 물론 걸음걸이 하나 앉는 앉음 어른에게 인사하는 법 다른 사람과 담화하는 법 어느 것 한가지 서구의 동(動)적인 예의(?) 아닌 에티켓이나 매너가 판을 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문화인에 끼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 버렸다.

그러니 고로(古老)들의 눈에서 보면 모두가 예의 예절없이 버릇 막되게

1) 史記 孔子世家

굴러먹는 세상이 된 것으로 비쳐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주 생성 발전의 원리가 태극의 역(易)에 있다는 원천적 관점에서 보면 동양의 5천년 뿌리깊은 예절문화를 세계인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동양-더욱이 우리 한국인은 5백년 이상 올라가서 고려때쯤의 것을 다시 복습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인 바 경(敬)에 대한 또 는 예(禮)에 대한 정신만은 놓지 말고 그것으로 21세기에 적합한 경(敬)과 예(禮)의 실천방안이 새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랄 뿐이다.

3. 경(敬)에 대한 개념(概念)

이상에 나타난 자의(字義)나 또는 속어의 구성등으로 보는 경에 대한 개념은 파악되지만 그래도 확연한 정의(定義)를 내리기에는 좀 더 나아간 고구(考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과거 정신문화의 역사에서 우러난 고전을 통해서 탐색해보려 하지마는 우선 우리의 현실적 생활에서 몇 가지 개념을 찾아본다.

1) 인륜(人倫)적 행위의 경(敬)

과거시대의 사람에게는(더구나 동양에서는 더욱 심했지만) 군주(君主)나 족장(族長)에게 대한 충성의 행동화로 경(敬)이 필수적이었으니 한자 속어에 경충(敬忠)이란 문자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역사가 바로 군주중심의 그것이므로 그 자료는 무한정한 것이지만 여기에 일일이 거례(舉例)할 것은 없다.

다만 한 예로 조선조 세조(世祖)때 단종(端宗)복위를 꾀하다가 역적으로 몰린 생6신 사6신의 고사를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있다. 자신의 영달 같은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민생이니하는 것도 생각않고 죽음을 택하든지 하야(下野)를 하든지 한 것을 수백년 후인 오늘에도 우리는 찬양(讚仰) 흠모(欽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군주나 왕가의 종사(宗社)를 생각하는 것은 21세기의 현대인이 지니는 국가관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또 사

회학적으로 분류하면 이러한 신념과 희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군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군주는 신앙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의 생명 재산까지도 다 포기하고 숭경(崇敬) 경충(敬忠) 신앙하는 일념 그 정신적 내용은 대의명분(大義名分)이 종교의 신조(信條)와 같은 값어치를 지녔던 것이다.

이렇게 준종교적인 대상에게 대한 경충(敬忠) 다음에 나를 낳아 준 부모에게 대한 공경심이 있다. 오늘에 윤리가 파괴되어 살부(殺夫) 살모의 패륜아가 속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부모에게의 공경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육이 서구화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니 어머니니 하는 세상이 되어 충이니 효니 경이니 하는 관념을 모르고 크는 아이들이 이다음 어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실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모에게 뿐 아니라 스승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나 형이나 형과 같은 선배를 공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 모두를 과거의 윤리나 예의였을 뿐이라고 팽개쳐서는 안되는 것은 그것이 흘러간 시대의 동양적 미덕이 아니라 새 세기의 전 인류가 실천해야 할 새로운 윤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 종교적 경신(敬神)사상

종교를 구별해서 자력(自力)의 자율(自律)적 종교와 타력(他力)의 타율적 종교로 대별할 수 있다. 따져보면 자력으로라고 해도 타율 타력의 가호(加護)없이 순전한 자력은 있을 수 없고 타력이라고 해도 자율, 자력의 노력 없이 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것도 그 거리가 멀지 않은 서로의 연결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자·타력간에 종교생활에서 경신(신 대신 불(仏)이라도 다 같은 범주에 들것이다.)사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 될 뿐 종교로서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망발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 가운데도 경천애인(敬天愛人)이니 하는 말을 즐겨 쓰는 것

을 보는 것이니 그래도 동양 고유의 정신문화가 완전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 다행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천애인 곧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란 말은 기독교 성서 신약에서 기독이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데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다.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모든 계명 가운데 어떤 것이 첫째인가 질문했는데 그때 기독의 대답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신을 사랑하라”고 하고 다음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하듯 하라”고 하였다.²⁾

이 신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요약해서 경천애인이라고 한 것은 동양이 아니고 또 한국이 아니고는 본래의 뜻보다 더 훌륭하게 이런 표현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천애인(敬天愛人)이야 말로 자기가 믿는 신(神)에게의 숭경(崇敬)과 신앙(信仰)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말인 것은 경(敬)자 한 글자로서 이러한 종교신앙의 관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리 만큼 홍대(弘大)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따져보면 경천사상이란 관념과 함께 행위의 의식(儀式)으로 발전한 것이 종교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서(史書)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러니 경천의 종교사상이 제천(祭天)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부여(夫餘)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 고구려의 동맹(東盟)등 나라사람들이 크게 모여 몇 며칠을 계속해서 술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을 췄다(國中大會 連日飲酒歌舞)고 기록이 남을 만큼 성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천사상 곧 경의 사상을 제쳐 놓고서의 종교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3)경(敬)의 개념 설정

그러면 위에서 본 것을 간추려서 경(敬)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것은 대순사상의 경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

2) 신약성서 마태복음 19장19절

인 실천윤리면에서 파악하자는 것뿐이다.

첫째 스스로 자신이 항상 몸과 마음을 삼가하여 경건한 자세로서의 정신 상태와 생활양상 바로 그것이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의 인격완성과 안심 안신의 생활을 위해서 경건(敬虔) 경근(敬謹)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간에 남에게의 존경감으로 공경하고 경숙(敬肅)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니 공손하고 겸손한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 시대에 얼마나 소요되는 덕목인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에게의 경(敬)은 물론이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피차 경(敬)으로 대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아래 사람에게도 먼저 경으로서 대하는 상대방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 존경하는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 일이다.

셋째는 요람에서 규정한 경을 근원으로 표현되는 예의가 바로 그것이니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 정한 6예(六藝)의 첫째인 예(禮)인 것이다.

예(禮)라고 하면 우선 종교상 예배(禮拜)나 예불(禮佛)이니 한 말들이 생각나며 법식대로 입는 예장(禮裝) 혼례(婚禮)에 쓰이는 예물(禮物)들 너무 많은 예절과 예의 의례가 있지만 굳이 들어 소개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경례(敬禮)의 예와 의를 지키지 않으면 차츰 퇴화해서 원시시대로 소급해지는 위험이 따를 것이고 아니면 기계과학적인면만 고도로 발달하여 정교한 기계로 조작된 로봇화할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정신문화와 과학문명의 균형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의 타당성을 시인한다면 역시 공자세가에서 가르친대로 예를 먼저 이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II. 고전(古典)에 나타난 경(敬)사상

각 민족의 언어가 지니는 개념이 서로 다 다른 것은 그 민족이 지닌 생활 습관에서 오는 사고와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외국어에는 경(敬) 그

가운데도 공경한다는 말과 부합하게 맞는 말이 보이지 않는다.

영어로도 기껏 존경한다는 respect나 reverence 같은 말로밖에 번역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문화의 바탕을 예경(禮敬)에 두고 발전한 동양의 한자문화를 현실적이고 가시(可視)적인 기계문화 일변도로 발전한 서구문화와는 비교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도 옛 성현들이 설한 바 고전 가운데서 동양의 예지와 영성(靈性)으로서 생긴 관념의 경사상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천구(穿究)하는 것이 온고지신(溫故知新)보다 더 높은 원시반본(原始返本)의 큰 뜻을 지닌다할 것이다.

1. 논어(論語)속의 경(敬)

먼저 4서3경 가운데 공부자(孔夫子)가 가르친 경(敬)은 어떤 개념을 지녔던가를 살펴본다. 논어의 학이(學而)장부터 20장 가운데 10장에 걸쳐 경(敬)이 논급(論及)되어 있는 것이 12대목인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개를 예문으로 들어본다.

ㄱ)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공자가 말씀하셨다. 千乘의 나라를 다스림에는 사람을 공경하여 믿고 用을 절약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역함에 때(여가)를 이용해서 할 것이다.)³⁾

ㄴ) 子遊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何以別乎(자유가 孝를 물으니 공자 말씀하시되 지금의 효는 잘 보양(保養)하는 거라고 한다. 개나 말까지도 모두 잘 보양하고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⁴⁾

ㄷ) 居上不寬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위에 있어서 너그럽지 않고 예(禮)를 함에 공경치 않고 상(喪)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으니 내 어찌 볼 것인가.)⁵⁾

ㄹ)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부모를 섬김에 공손하게 간(諫)하는 말의 뜻을 부모가 따르시지 않아도 또한 공경하여 어긋나게 하

3) 논어 學而 제一

4) 논어 爲政 제二

5) 논어 八佾 제三

지 않고 노심하여도 원망하지 않는다)6)

口)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군자의 도가 네가지 있으니 그 스스로를 행동함에 공(恭)으로 할 것이며 그 윗사람을 모심에 경(敬)으로… 할 것이요)7)

日)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안평중이 사람과 잘 사귀니 오래도록 공경한다)8)

人) …敬鬼神而遠 可謂知矣(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 말할 것이다.)9)

○)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군자에게 아홉가지 생각할 것이 있으니 보는 일에 밝음을 생각하고 듣는 일엔 총명함을 생각하고 색(色)에는 따뜻함을 생각하고 모습에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충성을, 일에는 공경을, 의심에는 의문을, 분이 날 때는 어려움을, 소득이 있을 때는 의(義)를 생각할 것이다.)10)

이상이 논어에 나와 있는 경에 대한 말들인데 여기에 보이는 것이 경에 대한 개념보다 경의 용도(用途)라든지 그 공효(功效)를 말하는 교훈적인 것이 주가 된다. 그것은 논어의 성격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어록(語錄)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공자는 뭇 사람들에게 경(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위의 예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경(敬)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 국가 치정(治政)의 근본 정책으로서 경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의 요체로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민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니 현대국가의 위정자가 다시 배움직한 교훈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승(千乘)은 제후(諸侯)가 다스리는 국가인데 병거(兵車)가 천(千)이 있고 그 병거수레 하나에 관련된 군사가 백명씩이다. 그러니 백만

6) 논어 里仁 제四
7) 논어 公治長 제五
8) 위와 같음
9) 논어 雍也 제六
10) 논어 季子 제十六

군사의 나라가 천승이고 만승(萬乘)은 그 10배니 곧 제왕이 다스리는 강역(疆域)이다.

(ㄴ) 부모에게 대한 효(孝)의 본질을 교시한다. 부모를 보양(保養)만 한다고 해서 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개나 말 같은 축생류도 다 하는 일이다. 부모에게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축생들의 본능적인 행동과 무엇이 다르냐하여 신랄하게 평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음미해야 할 경구(警句)다.

(ㄷ) 공자가 끝사납게 보는 일로서 남의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량이 없어서 예를 지키는 공경심이 없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

사람이든 곡식이든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속에는 알맹이가 차지 않아 설익은 것이랄 수밖에 없다.

(ㄹ) 부모를 섬기면서의 마음가짐을 가르친다.

부모가 하시는 일에 반대되는 의견을 공손하게 말씀을 드려 그 뜻이 받아 지지 않더라도 또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노라고 노심(勞心)하여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행위상 교훈을 이렇게 경(敬)에 두고 있다.

(ㄴ) 여기에는 군자가 행할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스스로를 공손하게 하고 웃어른을 모함에 경(敬)으로서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두가지는 생략함)

(ㄷ) 이 공치장(公治長)편에는 진(陳)나라 대부(大夫) 안평(晏平)이 사람 사귀기를 오래도록 공경해서 한다는 칭찬의 말씀도 있다. 친구를 사귀는데도 경(敬)으로서 할 것을 실례를 들어서 가르친 것이다. 오늘날의 신세대가 친구간이나 이성간에 너무 경(敬)의 관념없이 함부로 하는 일들의 경계가 된다 할 것이다.

(ㄹ) 이상은 국가나 부모 또 대인 관계 대사물(對事物)관계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귀(鬼)와 신(神)에게 대한 교훈이다. 경이원(敬而遠) 곧 공경은 하되 가까이하지는 말고 멀리하라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든지 추상적 이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천적 현실의 세계를 추궁하는 윤리적 실용주의라고 할 것인 바 그러한 사상이 여기에

도 나타난다.

귀신은 공경은 해야 하지마는 가까이 하지는 말라는 경원(敬遠)의 가르침이 실로 성인다운 말씀이라 할 것이다.

이 경원(敬遠)이란 귀신을 대상한 용어가 오늘날에는 인간사회에 두루 퍼져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심이 차츰 귀심(鬼心)으로 변해졌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경(敬)의 용도(用途)라고 할지 그 활용(活用)을 나타내는 논어 위령공(衛靈公)편의 1절을 소개하고 논어에서 표현된 경(敬)의 양상(樣相)을 마치기로 한다.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말이 진실하고 미쁘고 행위가 돈독해서 공경히 하면 오랑캐 나라에서라도 행세할 것이나 말이 진실하고 미쁘지 않고 행위가 돈독하지 않고 공경되지 않으면 비록 일반 고을이나 마을에서라도 행세할 것인가.)¹¹⁾

이 글에 나타난 신(信)과 경(敬)의 뜻도 참 훌륭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충신(忠信)하고 행실이 독경(篤敬)하면 세계의 어디 미개한 원시족 사이에 가더라도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 살고 있는 도시나 촌락 어디에도 붙쳐 살지 못한다고 이 글은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글의 뜻이라든지 그 교훈에 대한 논의가 아닌 경(敬)의 쓰임(用)에 대한 것이다. 위의 충신(忠信)이란 믿음 [信] 인데 사람의 말이 신(信)이 있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행동 [行] 에는 경(敬)이 있어야 행세(行世), 행세(行勢)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요약하면

생활언어에는 믿음 [信] 이 있어야 하고

생활행위에는 공경함 [敬]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서상(敍上)한 논어의 교훈을 다시 간추려서 논어가 제시하는 경(敬)의 개념을 찾아본다.

11) 논어 衛靈公 15

- 국가 정치의 근본을 경(敬)에 두고 경으로 믿음을 주어야 한다.
- 부모에게 대한 경(敬)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체가 된다.
- 재상자(在上者)일수록 더욱 경(敬)의 행이 있어야 한다.
- 재하자(在下者)가 윗사람에게의 경(敬)은 절대적이다.(평교간(平交間)도 마찬가지다.)
- 귀(鬼)와 신(神)에게는 경(敬)은 하되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이상이 실천윤리로서 경이 소요되는 상대를 들어서 말한 것인바 다만 경을 본질적으로 설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그리고 끝에 든 예문에서 신(信)이 정신적인 것이라면 경(敬)은 현실적이며 가시적(可視的)이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맹자(孟子)속의 경(敬)

논어에 비교해서 맹자의 가르침 가운데는 경(敬)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 생각건대 맹자는 자기의 직계 제자들보다 각국의 제후라든지 학자들을 상대한 현실면의 정치논의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던 생각되기도 한다.

景子曰 內則父子 外則君臣 人之大倫也 父子主恩 君臣主敬 丑見王之敬子也 未見所以敬王也 曰惡 是何言也 齊人無以仁義與王言者 豈以仁義 爲不美也 其心 曰是何足與言仁義也 云爾 則不敬 莫大乎是 我非堯舜之道 不敬以陳於王前 故齊人莫 如我敬王也

경자 [경추(景丑)를 존경해서 이른 말] 12)가 말하기를 ‘안으로는 부자간, 밖에서는 군신간이 인간의 큰 윤리입니다. 부자간에는 은덕을 주로 삼고 군신간에는 공경을 위주(爲主)합니다. (그런데) 추(丑)는 임금의 선생 [子] 을 공경하는 것을 보고 (선생이) 임금을 공경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맹중자(孟仲子)13)가 이르기를 아니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제나라 사람들이 왕과

12) 景子:이름이 丑(추)라는 사람으로서 맹자를 자기집에 모시고 배움을 청했다. 齊나라 사람.

13) 孟仲子 : 孟子의 從弟며 제자.

더불어 인의(仁義)로써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어찌 인의로써 좋지 않다고 할 것인가. 그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 어찌 함께 더불어 인의를 말하기에 족(足)한 것인가 하오. 말하자면 불경(不敬)이 이보다 큰 것이 없소.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임금 앞에 진언을 아니하오. 그러니 제나라 사람은 내가 임금을 공경하는 것과 같지 못한 것이요.

이 글은 그 앞부분이 없으면 뜻을 확연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앞의 이야기를 늘여 놓는다.

맹자가 제왕(齊王)을 찾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는 참에 왕이 보낸 신하가 찾아 왔다. 그 사신(使臣)이 '임금이 선생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감기로 바람을 쐬서는 안되기에 선생이 임금께 가주십시오'했다. 맹자 또한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거절했다.

그래 놓고는 이튿날 동쪽 마을에 있는 곽씨(郭氏)댁에 문상을 가려고 서두르는데 공손추(公孫丑)가 찾았다. 그가 어제 일을 알기 때문에 감기라고 해서 사절하시고 하루만에 남의 문상을 가시는 것이 혹여 옳지 않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그때 맹자의 대답이 또 걸작이다.

“어제는 병이 있었지만 오늘은 나았으니 어찌 조상을 안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상가(喪家)로 떠나갔다.

그때 제왕은 다시 신하를 보내어 문병하는 동시에 의원까지 동행시켰는데 집에 남아 있던 맹중자(孟仲子)가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는 왕명(王命)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몸이 편찮아서 배알(拜謁)하지 못하고 오늘은 병이 좀 나아서 일찍 조정에 나가셨으니 지금쯤 도착 되신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우선 일을 막았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 도중에 선생을 만나서 사정을 전하고 빨리 가서 임금을 뵈도록 말씀드리라고 하였다.

맹자는 집으로 돌아오기도 안됐고 해서 경추(景丑)라는 이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묵었다. 이 사정의 말씀을 들은 경추(景丑)가 위의 예문과 같이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앞의 사정을 알고 오늘의 우리들이 맹자의 경(敬)사상

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구(論究)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맹자의 제왕(齊王)에게 대한 태도 또는 행위가 본론의 주제인 경(敬)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1) 첫째 그는 자기 스스로 임금(王)을 알현(謁見)하려고 하다가 사자(使者)가 와서 임금의 입궐요청을 전하자 칭병(稱病)하여 회피하는 것이 경(敬)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경이라기보다 아프지도 않은 양병(佯病=피병)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 아성(亞聖)이란 말을 듣는 분으로서 옳은 일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바꾸어 생각한다.

예와 지금이 마찬가지로 학자나 문사(文士) 선비라고 할 사람들이 권문세가(權門勢家)에 늘여서서 줄을 대지 못해서 발돋움하는 것을 본다.

그에 반해서 맹자는 제(齊)의 선왕(宣王)이 '내가 나가 보고 싶은데 감기 기운으로 못나가니 좀 와달라'고 하는 말에 '나도 아파서 못 가서 뵈니 안 됐다.'고 응수해서 자진해서 찾아 뵈려하던 것을 멈추는 기개는 우선 감복할 만한 선비의 기상이다.

임금도 아프다. 맹자도 아프다하는 말 같은 것은 일종의 거절하는 인사법일 뿐 본론의 주제가 되는 경(敬)같은 일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다만 병을 칭탁하는 임금이나 맹자의 그런 것이 동양적 예의범절 또 그 근본이 되는 경(敬)사상의 표현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맹자라는 경서(經書) 가운데 나오는 경추(景丑), 존칭을 가해서 경자(景子)라고 하는 이가 참 좋은 은(恩)과 경(敬)에 대한 윤리관도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큰 윤리 곧 윤리의 대강(大綱)이 집안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가 되고 밖으로는 임금과 신민(臣民)사이라고 한 것과 부모에게는 은(恩)으로서 대하고 임금에게는 경(敬)으로서 대하는 것이라는 명쾌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파악되는 것이 부모에게 대한 효(孝)의 사상이 그 근본 근원이 은(恩)에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군왕(君王)에게의 충(忠)사상도 그 근본이 실천윤리적인 경(敬)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으니 맹자에게 이론을 세워서 질문을 하리만큼

한 지학(智學)이 경자(景子)에게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아무튼 군신간 나아가서는 대사회적으로 인간의 행위의 근본이 경(敬)이 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3) 이제 맹자의 입에서 진정한 경(敬)과 그 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 인가를 들어보기로 한다.

위에서 말한 경추(景丑)는 맹자를 초청해서 숙식(宿食)을 제공해 가며 학문과 도를 토론한 것을 보면 그 역시 경전에까지 경자(景子)로 표기되리 만 큼한 인물임을 추척할 수 있다.

경자는 임금의 부르는데도 양병(佯病)으로 응하지 않는 맹자의 태도를 불 경(不敬)한 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기(禮記)에 있는 ‘임금이 부르면 신하된 자는 수레에 멩에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빨리 달려가야 한다.)하는 구절을 예로 들어 맹자의 태도를 비판하는 정도의 형식적 소승적 도학자인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

맹자는 현자(賢者)에게 해야할 법도를 설한다. 한나라의 임금쫘 된 자는 마땅히 몸을 낮추어서 현자에게 공경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3가지가 있으니 벼슬과 연치(年齒), 덕(德)이 그것이다. 조정에서는 벼슬, 마을에서는 나이, 세상과 국민에게는 덕이다. 임금은 작위(爵位) 곧 벼슬을 가지고 만인에게 군림하지마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인사에게는 먼저 경(敬)으로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옛날 중국에는 불소지신(不召之臣)이라고 해서 임금이 감히 부르지 못하고 몸소 찾아가서 만나야 한 신하가 있었다.

그러니 이 맹자의 경의 정신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가장 민주주의적 공경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치자(治者)는 피치자(被治者)가 곧 국가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고용주인줄 알고 공복(公僕)으로서 존경심을 지니고 또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된다고 명념 실천할 것이다.

피치자(被治者)또한 재상자(在上者)에게 대한 존경감을 가지고 치자를 존경하는 호상(互相)존경 그것이 민주사회의 상경(相敬)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3. 중용(中庸)속의 경(敬)사상

사서가운데 중용에서는 여기 저기에 경(敬)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경의 개념이나 정의를 논한 것이 아니고 경이 적용되는 용처(用處)를 말한 것이 많다.

사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경이란 논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性)이나 심(心)의 작용이 아닌 행(行) 곧 행위의 작용이기 때문에 절로 그 용처 용도를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성(誠)보다 경(敬)에 대한 논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중용을 위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경(敬)에 관계된 것을 적기(摘記)하는 것이다.

天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一也 凡爲天下國家有九經 曰修身也 尊賢也 親親也 敬大臣也 體群臣也 子庶民也 來百工也 柔遠人也 懷諸侯也 修身則道立 尊賢則不惑 親親則諸父昆弟不然 敬大臣則 不眩 體群臣則士之報禮重 子庶民則百姓勸 來百工則財用足 柔遠人則四方服之 懷諸侯則天下畏之

(천하에 통하는 도(道)는 다섯이고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은 셋이다. 말하자면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지아비와 지어미, 형과 아우, 친구와의 사귀. 이 다섯가지가 천하에 통하는 도(道)다. 지·인·용(지인용(知仁勇) 세가지는 천하에 통하는 덕(德)이니 이를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다.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爲)데는 아홉가지 경(經:불변하는 근본)이 있다. 말하자면 제물을 닦는 것이며 현인(賢人)을 존경하는 것이며 육친을 친애(親愛)하는 것이며 대신을 공경하는 것, 여러 신하들을 이해로써 대하는 것, 많은 공인(工人=匠人)들을 오게 하는 것, 먼데 사람을 관대(寬待)하는 것, 제후(諸侯)를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몸을 잘 닦으면 도(道)가 설 것이요 현인을 존경하면 미혹(迷惑)되지 않고 혈육을 친애하면 모든 어른과 형제가 원망하지 않고 모든 신하를 공경하면 현혹되지 않고 모든 신하들을 몸소 이해하면 선비들의 보례(報禮:신하가 인민에게 예의있게 보답하는 것)가 무겁고 서민을 자녀처럼 대하면 백성이 근려(勤勵)하며 온갖 공인(工人)이 오면 천하의 경제가 유족하며 먼데 사람에게 유화(柔和)하게 하면 사방에서 돌아오게(모여들게)되고 제후에게 마음으로 따르면 천하가 경외(敬畏)하게 될 것이다.)¹⁴⁾

唯天下至聖 爲能聰明睿知 足以有監也 寬裕溫柔 足以有容也 發強剛毅 足以有執也 齊莊中正 足以有敬也 文理密察 足以有別也(오직 천하의 지성

은 총명하고 밝은 지혜로서 내려다 볼 수 있기에 족하고 너그럽고 온유 함으로써 용납할 수 있기에 족하고 굳히고 힘차게 함으로써 집념이 있기에 족하고 단정하고 중정(中正)함으로써 공경하기에 족하고 문리와 밀찰(密察)함으로써 판별(判別)에 족하다)¹⁵⁾

詩云 相在爾室 尙不魂于屋漏 故君子不動而敬 不信而信(시에 이르기를 '네가 실내에 있음을 보건대[相] 바라는[尙]바는 옥루(玉漏=방의 서북쪽 모퉁이, 그곳에 신주(神主)를 모신다)에 부끄럽지 않기를---'하였다. 때문에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받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받는다.)¹⁶⁾

대순사상의 3요체 성·경·신을 증용에서 찾으면 성(誠)은 여러 곳에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말부(末部)에 가서는 지성(至誠)이라고 해서 많은 분량의 장구(章句)가 소재(所載)되어 있다. 그 반면 경(敬)에 대한 것은 이상에 예거(例舉)한 2·3처에 불과하다. 그것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성(誠)은 천도(天道)라고 해서 형이상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경(敬)은 다만 인간생활의 행위상 문제인 형이하적 사상(事象)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서상(敍上)한 몇 개의 예문(例文)을 통하여 증용에 나타난 경(敬)사상의 개념을 추출해 본다.

먼저 증용 제20장에서 천하의 달도(達道) 다섯과 달덕(達德) 셋을 말한 다음 국가에 필요한 구경(九經)을 들어 가르치고 있다.

달도(達道)란 말은 보편타당성을 지닌 도리(道理)라는 뜻이 되고 달덕(達德)은 보편적 덕망이라는 뜻인 바 구경은 국가 경영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가지 달도(達道)는 서경(書經)과 맹자(孟子)¹⁷⁾에 나와 있는대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의 다섯가지로서 오륜(五倫) 오전(五典)¹⁸⁾ 오품(五品)등으로 불리우며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의 삼강(三綱)¹⁹⁾과 함께 동양적 윤리

15) 증용 제31장

16) 증용 제33장

17) 孟子 滕文公上에 이 五倫을 人倫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18) 書經 霸典에는 五典으로 나와있다.

19) 삼강(三綱) : 白虎通에 三綱六經이라고 하여 있는데 六經은 諸父·兄弟·族人·

의 대강(大綱)이 되어 전승(傳承)되어 온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음 달덕(達德) 곧 보편된 덕목으로 지·인·용(知仁勇)의 세가지가 그것이니 삼덕(三德)²⁰⁾이라고도 하고 있다. 이 삼덕 곧 삼달덕을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지(知)는 이성(理性)에 속하는 이지(理知)가 되고 인(仁)은 감정에 속하는 덕(德)과 의(義)가 될 것이며 용(勇)은 의지(意志)에 속하는 글자 그대로의 용기인 것이니 이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전인적(全人的)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주제는 오달도(五達道)나 삼달덕(三達德)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敬)에 대한 논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이 달도(達道)와 달덕(達德)을 말한 것 뿐이다.

경(敬)이 속해 있는 것이 그 다음 계속되는 구경(九經)이다. 이 구경은 경(經)이라는 자의(字義)의 다스린다(治)는 뜻을 취할 것이니 말하자면 아홉가지 정치의 경륜(經綸)이라고 할 것이다.

그 아홉가지가

1. 修身 (수신 : 스스로의 몸을 닦는 것)
2. 尊賢 (존현 : 어진이(賢者)를 존송하는 것)
3. 親親 (친친 : 아버이를 친애하는 것)
4. 敬大臣 (경대신 : 대신을 공경하는 것)
5. 體群臣 (체군신 : 못신하를 이해하는 것)
6. 子庶民 (자서민 : 서민을 아들처럼 대하는 것)
7. 來百工 (내백공 : 온갖 工人을 오게 하는 것)
8. 柔遠人 (유원인 : 먼데 사람에게 관유(寬柔)하게 하는 것)
9. 懷諸侯 (회제후 : 諸侯를 마음에 품어 따르도록 하는 것)

등이다.

오늘의 우리가 볼 때에 이 무슨 학교 교장선생의 훈화 같은 것이 爲天下 國家하는 경(經)이 되는 가 하겠지만 정치학, 사회학이니 하는 학문도 없고

諸舅·師長·朋友임.

20) 書經 洪範에 三德을 正直·剛·柔의 세가지로 한 것이 있어서 그 三德과 區別하기 爲해 三達德이라고 한다.

국가의 헌법도 없고 정당도 없고 하던 수천년 전에 이러한 경륜을 설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적인 일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할 때 서구의 사람들이 기껏해야 사랑(love)이니 착하다(wise)느니 좋다(good)느니 하는 기본적인 개념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적에 형이상(形而上)적인 관념이(그것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변별(辨別)하기에조차 번거롭지만) 풍부한 것을 넘어서 번잡(煩雜)하기까지 한 동양의 예지(叡智)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족(蛇足)같지만 다음 간단히 몇가지 실례(實例)를 들어본다.

기쁘다. 기뻐한다는 것의 표현도

희(喜) 열(悅:說) 환(歡) 환(權) 흥(欣) 흥(炘) 이(怡)

가다

행(行) 왕(往) 정(征) 적(適) 여(如) 지(之) 서(逝) 거(去)

생각하다

사(思) 의(意) 이(以) 위(爲) 위(謂) 념(念) 유(惟) 상(想) 억(憶) 고(考)

있다

유(有) 재(在) 존(存)

아아 또는 오오

오(鳴) 호(呼) 오호(嗚呼) 오호(烏乎) 차(嗟) 우(吁) 차우(嗟吁) 차우(差于) 차차(嗟嗟) 허(噓) 희(噫) 희(戲) 어(於) 호(乎) 허희(噓噫) 어희(於噫) 어희(於戲) 어호(於呼)등 많은 표현들의 글자가 있다.

(그 밖에도 이 글자들을 이용하여 성어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어휘가 변쇄 번잡하게 많은 것을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서구어로서는 다 번역할 수도 없다는 데서 유구한 동양문화를 세계에 자랑해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눈에서 위의 구경(九經)을 볼 때 우리에게 단순한 현대인적 사고와는 다른 사유방법을 지닌 옛사람들의 사고를 채취(採取)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구경(九經)을 살펴보면 그 아홉가지가 수(修) 존(尊) 친(親) 경(敬) 체(體) 등이 되는데 그 대상(對象)은 각각 다르다. 본론의 직접

주제가 되지 않는 다른 것을 제쳐두고 경(敬)에 대해서 살피면 경(敬)의 대상은 대신(大臣)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신이란 꼭 일본정부의 장관인 문부대신, 내무대신과 같은 관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의 중요한 신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또 행정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뜻이 된다.

그러면 이 구경(九經)의 하나인 경대신(敬大臣)의 경이 다른 여덟가지의 경(經)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의 몸을 닦는[修] 일이나 또 어진 이를 존송하는 것, 아버이를 친애하는 것이 모든 것이 경(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오는 모든 신하의 하는 일을 체인(體認)하는 것, 또 서민 모두를 연민하는 것, 온갖 공인(工人)을 불러모아 경제를 윤택케 하는 것, 외지인(外地人)에게 온유(溫柔)하게 하는 것, 제후(諸侯)를 마음에 회유하는 것이 모두에 경(敬)의 정신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경에서 경대신(敬大臣)이라고 해서 공경의 대상을 대신 곧 조정의 중요한 신하들에게만 해당하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 것은 위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모든 웃사람(행정하는)을 존경하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보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대순사상에서 3요체로서의 성·경·신으로 설정한 것은 안으로서의 성(誠)과 밖으로서의 경(敬), 거기에 종교행위의 가장 큰 버리가 되는 신(信)을 보태어야 한다는 큰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천하의 지성(至聖:지극한 성인)이 어떤 것으로 그 성인다운 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 이것 또한 경(敬)의 직접적인 개념이나 정의는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기에 소개한 것이다.

성인은 총명한 예지로 세상에 임(臨)하기에 만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관용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세상을 다 포용(包容)하기에 만족하다고 한다. 거기에 용기있는 강毅(強毅)함으로 집념에 만조하며 단정한 용의(容儀)에 중정(中正)한 심정으로 하면 경(敬)에 있어 만족할 것이며 문리(文理)로서 깊이 살피면 판별(判別)에 만족할 것이라고 하여 있다.

천하의 지극한 성인의 길을 이 다섯 가지의 만족도(滿足度)로서 규정하는 것도 미흡(未洽)한 면이 없지않아 있다. 다만 이렇게 그 성격을 간주려 예시(例示)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 정도면 지성(至聖)의 자격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참고로 공자(孔子)를 높여서 大成至聖文宣王으로 추존하고 있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아무튼 이 지성(至聖)의 한조건으로 足以有敬也라는 대목이 나온다. 敬에 있어서 족하다는 조건이다. 至聖의 다섯 조건 가운데 敬이 하나 끼어지며 그 敬이 제장(齊莊:용모의 단전함)과 중정(中正:마음이 평화로움)이 그 요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덕목의 기본이 된다는 설들이 있었다. 때문에 경(敬)을 논함에 천언만담(千言萬談)에 앞서 이 한구절이 진실로 핵심을 찌른 것으로 다시 인식되어 지는 것이다.

중용에서 다시 한가지는 詩經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는 詩的인 표현을 써서 경(敬)과 함께 신(愷)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군자가 홀로 실내에 있을 때라도 모셔둔 신주(神主)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仰天而不愧 곧 하늘을 우르러보아 부끄럽지 않은 그 정신 그대로다.

그러면 그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군자가 움직이지 않아도 경건(敬虔)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움직임이 없이 곧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향을 뿜는 난(蘭)처럼 경(敬)이 풍겨나와야 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종교적인 경지까지를 교시하는 이 시구(詩句)를 오늘의 학자 예술가를 위시한 모든 인간들이 다 함께 배움직한 계잠(誠箴)이 아닌가 한다.

4. 대학(大學)속의 경(敬)사상

대학 가운데는 경(敬)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없고 다만 대학에 나와 있는 격물(格物) 치지(致知)에 필요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필요로 한 것이다.

딱 한군데 경(敬)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것도 시경(詩經)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詩經

穆穆文王 於緝聖敬止 爲人君止於仁 爲人民止於敬 爲人子止於孝 爲人父止於慈 與國人交止於信

(시에 이르기를 ‘삼가하여 덕이 깊은 문왕(文王)은 천명(天命)을 받으시어 경(敬)하여 머문다’고 ---

남의 임금이 됨에는 인(仁)에 머물고, 남의 백성이 됨에는 경(敬)에 머물고, 남의 아들이 됨에는 효(孝)에 머물고, 남의 아버지가 됨에는 자(慈)에 머물고 나라사람들과 사림에는 신(信)에 머물 것이다.)

여기 이 예문에 머문다(止)는 말이 거꾸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해설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다. 여기에 나오는 지(止)자에 대한 연역적(演繹的)풀이는 대학의 근본 강령으로 세가지 버리[綱]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3대 강령이란 이렇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대학의 도는明德(明德)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친(親-이 주자(朱子)는 親을 新의 뜻으로 간주하였지만 여기서는 親하다는 그대로 풀어쓴다)하게 하고 지극한 선(至善)에 머무는데 있다)²¹⁾

여기에 나오는 在止於至善을 풀어 가는 논리의 전개 가운데 시경의 止를 인용한 다음 인군(人君)으로서 또 인민(人民)으로서 또 인자(人子)로서 인부(人父)로서 사회인으로서의 행동의 당위성(當爲性)을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위의 예문 앞 구절을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기에 군더더기 같지마는 소개하는 것이다.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上

詩云

緝蠻黃鳥 止于丘隅

(시에 이르기를 ‘지저귀는 피꼬리가 구우(丘隅: 높은 언덕 풀이 무성한 곳)에 머무는구나’ 하였다²²⁾

子曰

於止知 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공자 가라사대 ‘머물음에 그 머물 곳을 아는데 가히 사람으로서 새만도

21) 大學 經 첫머리

22) 이 詩句는 詩經 商頌 黃鳥편

못할까)²³⁾

해서 머무는 데를 일깨워 경계한 것이다. 머무는 데를 알고 바르게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하면 대학이 가르치는 것이 지극한 선(至善)의 자리다. 그래서 명덕(明德)을 밝히는 것과 백성이 친하게 지내는 것과 최고의 선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대학의 사명이 있다고 가르친 것이 이 3대강령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이 대학에는 그저 국가 인민으로서의 본분이 경(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한마디 뿐인 것 같지마는 중국 역대의 성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학의 物有本末(물건에는 근본과 끝이 있고) 事有終始(일에는 마침과 비롯함이 있다)라는 원칙 아래 격물치지(格物致知)²⁴⁾와 경(敬)을 결부해서 고구한 많은 이론이 후세에도 과제가 되어 전해진 것이다.

송(宋)대의 주자(朱子)²⁵⁾는 성리(性理)학의 수양법을 거경(居敬) 지경(持敬) 주경(主敬)으로 표현했다.

그리하여 원래 경(敬)의 대상인 천(天)이나 왕(王)이나 부모에게 향한 공손한 마음으로서의 태도를 반대하였다. 그것은 경(敬)이란 대상에게 대한 이전에 인간이 스스로 닦아야 하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거기에서 격물치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 이전에 북송(北宋)의 정자(程子)²⁶⁾가 경(敬)을 정의하여 주일무적(主一無適 : 마음을 한군데 집중시켜 벗어나지 않게 함)과 정제엄숙(整齊嚴肅 : 외모를 갖추고 마음을 엄숙히 함)을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근본으로 한 것이 주관적 해석의 처음이 된다.

이 이론에 주자가 반대하는 것은 경(敬)이란 목적없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니 임금을 공경한다, 아버이를 공경한다, 장자(長者)를 공경한다고 하는 예와 같이 대상과 목적이 있게 사용된다고 했다. 그러나 '경(敬)해서 실(失)

23) 大學 伝제3

24) 格物致知 : 大學 전 제5장에 나오는 致知在格物이라는 말이 ?의된 것으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명확히 하는 것.

25) 朱子 : 北宋의 유학자. 그의 이론이 朱子學(性理學)을 형성한다.

26) 程子 : 이름 頤, 호 明道

이 없다'27)고도 하여서 '일을 대할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마찬가지로'고 양시론(兩是論)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의 격물치지를 경(敬)을 근본으로 하여 이론을 세운 것은 대학보다 교학(敎學)의 초급서적인 소학(小學)28)에서 敬을 고조하여 있어서 대학은 의례 같은 맥락으로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불비한대로 사서에 나타난 경(敬思想)을 엿보고 다음은 다른 역대 학자나 전서(典書)등이 교시하는 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마는 다음 국내의 전적에서 몇 군데 더듬어 보기로 한다.

5. 한국 고전속의 경

한국사상에서 경(敬)에 치중해서 말한 이를 들자면 신라때 최고운(崔孤雲)29)과 조선조의 퇴계(退溪) 두 분을 들 수 있고 성·경·신(誠敬信)을 함께 고조한 최수운(崔水雲)30)최해월(崔海月)31)과 증산·정산(龜山·鼎山) 양위분 곧 대순의 도조·도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종교의 교조나 교주가 주창한 것은 다음 절로 미루고 먼저 고운 최치원(崔致遠)과 퇴계 이황(李滉) 두 선생의 가르침에 접하려 한다.

1) 최고운의 경학대장(經學隊杖)에서

먼저 경학대장(經學隊杖)이란 책을 소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고운의 저서가 내용이 기술된 것은 신라때지만 일반 독서계에 알려진 것은 해방후 1958년이기 때문에 귀에 익은 전적(典籍)이 아니다. 고운의 후손들이 목판 3권으로 간행했는데 1권은 천지(天地)에서 애민(愛民)까지 46편, 2권은 용현(用賢)에서 문무(文武)까지 47편 3권은 왕백(王伯)에서 안민(安民)까지 44편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경학(經學)의 원리와 실용방책을 서술한

27) 朱子の 語錄

28) 小學 : 아동교재용으로 朱子의 가르침을 편찬한 책

29) 崔孤雲 : 名 致遠 唐에 留學하여 賓工科에 及第하고 文名을 날린 大學者.

30) 崔水雲 : 천도교의 창도교주 성·경·신을 처음 제창함.

31) 崔海月 : 천도교의 2대교주, 3경(三敬)사상을 새로 세웠다.(敬天·敬人·敬物)

것인데 우주구성에서부터 용현(用賢) 안민(安民)등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가위 모든 학문의 총체적인 것이 망라되어 있어서 오늘에도 참고가 되는 좋은 내용이 골고루 갖추어 있다.

이 책에 있는 경(敬)의 대목을 다음에 소개하여 송(宋)의 정주학(程朱學)이 지녔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경(敬)의 본질적 개념과악에 유용한 면을 볼 수 있는 것이다.

人間不能不交乎物 而不柱使之不累乎物 例如能不累 主乎敬而已 有主則虛 虛則邪不能入 无主則實 實則物未奪之 故不惟嚴恭於十手十目之如 物戒懼乎不睹不聞之中 不惟勉於操存舍亡之時 必兢業於德盛仁義

(사람이 본래 물건에 접촉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마는 그 물건에 얽매이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얽매이지 않을까. 경(敬)을 주체(主體)로 하는 것뿐이다. 주(主)가 있으면 마음이 비고 비면 사(邪)된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 주인(主人)이 없으면 (물욕이) 차고 물욕이 차면 물질이 와서 (마음을) 뺏는다. 때문에 엄숙하고 공경한 것을 열 손과 열 눈이 있는 곳에서만(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가운데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오직 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어지는 때를 힘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덕이 성하여 인의(仁義)가 되는 그런 업(業) 삼가 행해야 한다.)³²⁾

儼然而若思 惕然而若厲 齊明盛腹 非禮勿動 有之以修其身 責難是盡 非道不陳 推之以事其君 臨民則有朽索之懼 奉親則有如在之思 是其心之所主者 非道聲音笑 貌是也 噫 敬以直內 足以配乎乾 曰毋不敬 足以該乎禮敬之戒 嚴乎青 敬之咏 甲乎詩 敬禮之輿也 不敬則禮不行 敬德之聚也 敬則必有德. (근엄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힘써야 한다. 의복을 반듯하게 또 밝게 입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몸을 닦고 어려운 일에 힘을 다하도록 自賢한다. 바른 도가 아니면 進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미루어 그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대하여는 썩은 새끼로 말을 맨 듯 두려움이 있고 제사를 받들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 마음의 주된 것이니 함부로 말하고 웃는 모양은 도가 아니다. 아아! 경(敬)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면 죽히 하늘과 함께 할 것이요 불경(不敬)한 일이 없으면 죽히 예절과 함께 할 것이다. 경(敬)에 대한 계(戒)는 상서(尙書)에서 엄격하고 경(敬)의 노래는 시경(詩經)에 읊어 있다. 경례(敬禮)의 수레는 경(敬)하지 않으면 예(禮)가 행해지지 않으며 경(敬)의 덕(德)을 모으는 것은 경(敬)하면 반드시 덕(德)이 있다.)³³⁾

32) 崔孤雲 經學隊杖 敬條

33) 詩經 文王什 文王

이렇게 고운은 ‘경(敬)의 유덕(有德), 흥(興), 계(戒), 봉친(奉親), 의장(衣裳) 등 여러 가지를 말하였다.

그 밖에도 ‘잠시라도 경(敬)이 없으면 쉽게 움직이고 태만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경계도 하였고 시경(詩經)의 문왕(文王)편의 시구(詩句)를 인용하여 경(敬)을 고조하였으니

穆穆文王 於緝熙敬止³⁴⁾

(심원(深遠)하구나 문왕(文王)이여 천명(天命)을 받아서 경(敬)하여 머물다) (*위의 대학의 경에도 소개되었다)

천명의 예찬과 함께 그 천명을 (敬)으로서 머물게 하였다고 읊어 있는 것에 유의할 것이다.

2) 퇴계(退溪)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다음은 한국 성리학의 대표가 되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유학의 대가로서 그의 理氣二元論은 가히 오늘날도 한국사상의 대종(大宗)이 되어 있다.

그러나 성리학이 체계화해서 한국에 전래되기 이전 중국서는 정자(程子)가 경(敬)을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 정의를 내리고 방법론으로는 정제엄숙(整齊嚴肅)한다고 하였다. 주일(主一) 곧 마음의 전일(專一)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마음과 함께 걸 모습을 반듯하게 또한 엄숙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朱子)는 이에 반(反)해서 ‘공경이 자기 수양의 길이라면 어른들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다리를 도사리고 있어서 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조하였다.

그러나 정명도(程明道)³⁵⁾는 ‘나는 문자를 쓸 때 지극히 경(敬)한다. 그것은 글자 잘 쓰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학문이다.’³⁶⁾하고 있다.

그런데 소학에서 정이천(程伊川)³⁷⁾은 ‘경은 성학(聖學)의 시초며 또 끝이다’ 할만큼 소학의 바탕을 경(敬)에 두고 있음을 본다.

34) 詩經 文王什 文王

35) 程明道 : 名 顥 氣卽理라고 해서 理氣一元論을 펴.

36) 近思錄 : 程明道 지음.

37) 程伊川 : 名 頤, 明道の 아우. 理氣二元論. 朱子와 같은 學說로 朱子學을 程朱學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주자학 곧 정주학(程朱學)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모두가 敬의 뒷받침이 있어야 이루어진다고까지 하였다.³⁸⁾

또한 송대(宋代)의 사랑좌(謝良左)의 상성성(常醒醒 : 항상 마음이 깨어 있음)이나 윤화정(尹和靖)의 수렴(收斂 : 마음을 집중함)이니 하는 설이 모두 경(敬)을 밝히기 위해 그 어느 한면을 보고 글자로 표현한 것이라서 참고는 된다 할 것이다.

한국에 주자학이 들어온 다음 주리설(主理說)이던 퇴계가 경(敬)사상을 방법론으로 고양한 반면 율곡(栗谷)은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에 입각하여 성(誠)사상에 치중하였다. 이 역시 두 분의 거유(巨儒)가 각자의 주관으로 어느 일방을 치중했는 것 뿐 성(誠)이나 경(敬)이 주는 개념은 역시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성(誠)은 정신적인 면에 더 작용하고 경(敬)은 외양적인 면에 더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객관적 태도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만 퇴계가 저술 단행한 성학십도(聖學十圖)³⁹⁾에 밝힌 경(敬)사상을 소개한다.

이것은 퇴계가 경연강의(經筵講義)의 소용으로 심성의 요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저술 편찬한 교재와 같은 것이다. 태극도(太極圖)를 위신하여 10개의 체계도(體系圖)와 그 해설인 도설(圖說)이다.

이에 앞서 거경(居敬: 늘 경으로 생활함)에 대한 퇴계의 말씀을 듣는다.

비록 뜻을 세울 수 있어도 거경(居敬)으로 뜻을 지켜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뜨고 전일(專一)하지 못해서 온종일 허튼 소리만 하고 지낼 것이다.⁴⁰⁾

하였다.

이 10도설은 敬을 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한다.

38) 大學或問에 이러한 주장이 나와있다.

39) 성학십도 1568 A.D에 퇴계 이황 전

내용 1. 태극도 2. 서명(西銘)도 3. 소학도 4. 대학도 5. 백록동규도(規圖) 6. 심통성정(心統性情)도 7. 인설(仁說)도 8. 심학(心學)도 9. 경재감(敬齋箴)도 10. 숙흥야매(夙興夜寐箴)도

40) 退溪全書

1. 敬을 유지함에는 동정(動靜)을 일관하고 안팎(內外)을 합치시키고 드러남(顯)과 숨음(微)을 합일하는 것이 이(理)가 된다.
2. 경(敬)의 태도를 지니면 욕심이 적어지고 도리(道理)는 밝아진다.
3. 경(敬)이란 하나의 글자가 성학(聖學)의 시초와 종결(終結)을 성립시킨다.
4. 경(經)이란 일심(一心)의 주재(主宰)며 본원(本源)이다.
5. 경(敬)이란 경계(戒)하고 삼가히(謹)하여 두렵게(恐懼)하는 것이다.
6. 경(敬)이란 공부하는 사람이 지닐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의 분별(分別)이다.
7. 무슨 일을 하든지 경(敬)의 태도로서 하여야 한다.
8. 공부하는 사람의 요체(要諦)는 한결같이 경(敬)의 태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9. 경(敬)은 모름지기 전일(專一)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 경(敬)이란 홀로 삼가히 하고 존양(存養)하고 성찰(省察)하여 공부하는 이의 계잠(戒箴)이 되어야 한다.

경(敬)에 대한 역사적으로 많은 전적의 문헌과 언설(言說) 가운데서 한국 신라의 고운(孤雲) 조선의 퇴계 두 선생의 것을 가려본 것인데 경(敬)에 대한 위상(位相)이 더 높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더욱이 송(宋)대 학자들의 이론을 보충하고 부연한 동시에 새로운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은 당시로서는 탁월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Ⅲ. 종교계에서 본 경(敬)사상

한국에 현존하는 종교화 교단의 수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간에 많은 적든 경(敬)사상이 없는 종교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각종교의 교의마다 각각 특색이 있기에 일률적으로 논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개 종교의 신앙대상인 주신(主神)을 숭경(崇敬)하는 일이라든지 부모에게 효경(孝敬)하라는 일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존경(尊敬)하라는 것을 거의 공통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오랜 종교보다도 동양의 종교 그 가운데도 민족 자생종교의 경우

가 더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그 가운데도 최수운을 교조(敎祖)로 하는 천도교(天道敎)와 강증산(姜甌山)을 도조(道組) 조정산(趙鼎山)을 도주(道主)로 받드는 대순진리회에서는 교의의 일부에 성(誠) 신(信)과 함께 경(敬)의 사상이 신앙의 요체(要諦)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동학(東學)이라고 하던 천도교의 경(敬)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본다.

1. 천도교의 경(敬)사상

수운의 교설이 담겨있는 동경대전(東經大全)에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석자니라(吾道博而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⁴¹⁾

고 하여 바로 이것이 교의의 대강(大綱)인 것으로 말한 바 이 3가지 발전의 중심이 바로 경(敬)이다.

경(敬)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면 잠시라도 모양(慕仰)함을 늦추지 말라(不知敬之所爲 暫不弛於慕仰)⁴²⁾

경(敬)이 되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이 거슬리고 어두운 것을 두려워 할 것이다.(不知敬之所爲 恐吾心之昧)⁴³⁾

여기의 이 두 구절이 경(敬)을 극명(克明)하게 가르치고 있다. 경이 어떻게 성립 되느냐는 것을 일러서 남을 모양(慕仰:그리워하고 우러러보는 것)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는데서 온다고 하였다. 또 그 소종래(所從來)를 내 마음이 잘못되어 어둡지 않아야 된다고 하였다.

아무튼 이 경(敬)의 사상이 2세 교주인 최해월(崔海月)에게 와서 더한층 높은 단계로 변화해진다. 그것은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3경(三敬)사상으로 승화한다.

41) 천도교 경전 東經大全 座箴

42) 천도교 경전 東經大全 八節

43) 천도교 경전 東經大全 論學文

첫째 하늘을 모셨다.<侍天主>는 사상이 사람이 곧 하늘인<人乃天>사상으로 발전해 간다. 해월신사(海月神師)법설에

사람이 바로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⁴⁴⁾
경천(敬天)만 있고 경인(敬人)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라⁴⁵⁾

여기서 경천(敬天)과 함께 경인(敬人)의 사상이 깃들여 있으니 그 근본인 경천(敬天)과 함께 사인여천(事人如天 : 사람 모시기를 하늘같이 한다.)을 제시한 것이다.

경물(敬物)에 대한 그의 법설을 들어본다.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데 의지하였다.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 먹는 이치를 아는데 있다.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그 생성을 돕고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여 그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의식은 다 한울님 조화의 힘이니 한울님과 사람의 서로 도와주는 기틀은 잠깐 이라도 떨어지지 못한다.)⁴⁶⁾

이러한 3경(三敬)사상 곧 경천·경인·경물은 다른 종교 교의에 보지 못하는 고매한 윤리사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해월(海月)의 법설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경천(敬天): 경천은 결코 허공을 향해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공경함이니 오심불경(吾心不敬)이 곧 천지불경(天地不敬)이다...

경인(敬人): 경천(敬天)의 바탕으로 경인(敬人)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집에 사람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 해야 한다. 사람을 공경치 않고 신을 공경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물(敬物): 사람을 공경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공경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도를 이룰 수 있으니 풀 한 포기 나무 한가지라도 공경tm럽게 쓰고 절약하여야 한다.⁴⁷⁾

여기에 더 설명을 가하지 않고 다음 예화(例話)를 들어 둔다

44) 천도교 교리와 사상 p. 77 해월신사의 법설과 사상

45) 앞의 책 해월신사의 법설과 사상(三敬)

46) 앞의 책 p. 80 (天地父母)

47) 천도교교의 p51 三敬說

내 일찍 서택순집을 지나다가 베 짜는 소리가 나기에 서군에게 저 소리가 머느리 베 짜는 소리냐 한울님이 베 짜는 소리냐 하니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

수운대선사께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늘과 같이 섬기라 하셨으니 나는 비록 부인이나 어린 아이 말에도 배우는데 세상에는 거만하고 스스로 높은 체 하는 자가 많다...48)

지금으로부터 백수십년 전에 이러한 사상은 서구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앞선 4민(四民)평등 남녀평등 청소년존중의 차원을 넘어서 신인합일(神人合一) 신인즉일(神人即一)의 경지까지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수운, 해월 모두가 위대한 종교인인 동시에 위대한 사회운동가였던 것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2. 대순진리의 경(敬)사상

먼저 요람(要覽)에 나와 있는 경(敬)의 해설을 다시 보기로 한다.

경(敬)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49)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모든 예의범절에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경의 태도인데 그 전제조건으로 심신(心身)의 움직임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또 이 경(敬)이 도인들 수신 수양에 어떻게 표현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무거운 과제가 된다.

때문에 상대(上代)의 전적(典籍)에 나타난 고현(古賢)의 가르침을 주로 하여 그 개념을 모아 정의하는 것이 본론의 목표가 된다. 동시에 이 경(敬)사상이 인간에게 더욱이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첫째 경(敬)이란 어떤것인가?

48) 천도교교의 p. 56 事人如天

49) 대순진리회요람 3요체

심성(心性)면에서

- 가. 마음을 엄숙 경근하게 지낸다.
- 나. 종교적인 전일(專一) 전심(專心)을 지낸다.

외양(外樣)면에서

- 가. 두발과 외장등 용의(容儀)를 정제(整齊)한다.
- 나. 행동거지(舉止)를 공손하고 경근하게 한다.

행동면에서

- 가. 경근한 심성으로 유화(柔和)하게 행동한다.
- 나. 남의 말을 경청(敬聽)하며 다수의 의결에 따른다.

둘째 경(敬)의 대상은?

현실생활에서

- 가. 부모는 물론이요 친인척과 모든 이웃사람에게
- 나. 정부와 위정자 지도자에게
- 다. 국가인민 모두에게

종교생활에서

- 가. 신앙대상인 양위상제께
- 나. 도단(道團)의 의례 범절에
- 다. 도단의 간부 및 모든 도인에게

셋째 경(敬)의 공덕(功德)은?

개인으로서

- 가. 심성이 경근 고결하고 외양이 유화해진다.
- 나. 전일(專一)된 심성으로 경거망동과 일의 오류가 없다.

사회인으로서

- 가. 국가 사회에 경충(敬忠)으로 봉사할 수 있다.
- 나. 도인의 행동과 도단의 규율 있는 의례가 무언중의 포덕이 되어 도단의 융성을 이룬다.

결론적으로 옛 현인(賢人)들이 경(敬)을 인간만사의 기본과 같이 생각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인(古人)이 말한대로 성(誠)과 경(敬)을 수레의 양축(兩軸)과 같이 생각한 것 또한 타당한 일이다.

경근과 공손이란 것이 윤리도외의 미아(迷兒)가 되어 버린 오늘의 세상에 서 대순사상이 다시 경(敬)의 높은 기치(旗幟)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VI. 오늘의 시대상(時代相)과 경(敬)사상

서기2000년부터를 21세기라고 하고 또 새 천년의 시작이라고 해서 세계는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춤추고 노래부르면서 축하를 한다고 그것도 무슨 변이라도 난 듯 떠들썩했다.

그랬어도 세계는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더 좋게 되리라는 조짐<兆>도 없고 또 보증도 없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더 개발 발전되고 그에 따른 기기(器機)는 전(前)세기의 인간은 상상도 못하였던 부문까지 제작되고 또 이용되고 있다.

인간의 세포조직 염색체가 도상화해서 명료하게 표명되고 생물의 복제(複製) 더구나 인간의 복제, 신제(新製: 남녀교합의 정(情) 난(卵)자 결합이 아닌 방법으로)가 가능한 상태까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이다 생산이다 하면서 뿜어대는 공장의 매연(煤煙)으로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개발이다 건축이다 하면서 파괴 훼손한 대지는 해마다 산사태(山沙汰)의 황토물을 쏟아내는 황폐상을 보이고 있다.

공장의 오폐수(汚廢水)가 하해(河海)를 망그러쳐 죽어나는 어패류(魚貝類)와 해조(海藻)는 예사(例事)가 되어 산하대지(山河大地)의 황폐상이 나날이 현저하다.

더구나 지하의 모든 자원(資源)은 발굴(發掘)되고 농토는 화학비료와 독극성 농약으로 병들어 가고 반세기전 공기와 식수(食水)를 세계에 자랑하던 금수강산 한국은 아주 쓰레기 폐기소 같은 황토(荒土)로 변해가고 있는 실

정이나 당장 내 앞에 나타난 화재(禍災)가 아니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을 벌해(罰害)가 매일 매일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러나 본고와 같은 종교의 논고로는 논자의 지식과 학문의 부족, 그리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 (그것도 인위적인 사상(事象)이 많지만)은 일단 차치하고 인간의 심성문제, 윤리도덕성문제 등을 본고의 주제 경(敬)의 주관(主觀)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1. 역장유유서(逆長幼有序)의 시대

과거 동양윤리의 강륜(綱倫)이 3강(三綱: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이며) 5륜(五倫)이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인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오늘의 시대상에서는 이런 말을 끌어내는 것조차 별 소용이 없는 것도 같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이런 강륜(綱倫)이 무너진 것이 X세대 N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의 기성세대에 책임이 있고 한국의, 또 동양전체를 뒤덮은 구미(歐美)의 사조 때문이었던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서구풍의 신문화 신사조가 들어올 때 동쪽 사람들은 스스로의 바탕 위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하지 못하고 서구 일변도(一邊倒)가 되었던 우(愚)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어린이란 신조어(新造語)가 생겨 어린이는 이 나라의 꽃이다, 젊은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해서 그들을 왕자로 공주로 하는 기성세대의 충성?의 결과가 오늘의 현상을 빚어내게 되었다.

동양은 종적(縱的)인 서열(序列)로 조직된 사회여서 군신(君臣) 부자(父子) 장유(長幼)의 서차(序次)가 확연하였다.

그러나 서구(西歐)는 횡적(橫的)으로 그 서차(序次)의 구별 없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것이 가정윤리 사회윤리가 되었다. 굳이 윤리라는 말을 붙일 것 없이 세상에 태어난 대로 각자가 하나의 생물로 살아가면 되게 된 것이 문자와 학문 그리고 사회적 연계 속에 형성된 동양적 한국적 윤리와는 근본적

으로 대비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 윤리의 선진지역인 동양이 후진국가의 미개발된 윤리를 전수 받아 개인의 권리나 고저(高低)의 위계(位階)없이 I 하면 나(我)고 you하면 너(汝)라는 것밖에 없는 편리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바뀌지기 시작한 것이 윤리의 역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서양영화에서 보듯 임금의 앞에서도 책상다리를 하고서는 ‘당신 어떻게 생각하오?’하는 대화를 맞담배질로 하는 풍으로 또 손자늬이 늙은 제 할아버지와 어깨동무를 하고 “할아버지하고 날 때부터 친구 아니요?”하는 그런 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퍼져나가니 오늘의 이 현상은 과거의 역사가 몰고 온 결과일 뿐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역장유유서(逆長幼有序)라고 할 것이니 늙은이는 물러가라 인간의 노후물(老朽物)이다 해서 폐품으로 간주당하는 것이 상례(常例)가 되었다.

그 대신 젊은 세대는 386이니 하는 30대의 국회의원이 쏟아져 나오고 기성세대는 도로 그들에게 빌붙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인다. 경험이니 경륜이니 하는 것은 뒷문제고 세대교체로 40대 30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이 줄지어 등장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모든 일에는 햇별과 그늘, 일장일단이 있기에 꼭 장유유서라야 될 것도 없고 또 꼭 신세대라야만 되는 것도 없다. 다만 국가에 충경(忠敬)하고 사회에의 예경(禮敬) 남을 존경하는 그런 경건(敬虔)한 성신(性身)의 소유자가 소용되는 것이다.

경(敬)의 사상이 재생될 때 국가전반 사회전반 개인의 인격이 재생 부활할 것만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2. 경(敬)사상의 보급과 교육

어떻게 하면 경(敬)사상을 보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끝으로 생각해본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사회에 보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보석일 뿐이다.

이 전래(傳來)의 보물인 경(敬)의 사상을 어떻게 오늘의 세대에 보급할 수

있는가. 하기가 대순의 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꼭 대순인이 아니라도 이 시대의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어릴때부터의 교육이다.

교육이라고 하면 모두들 교육부를 생각하고 대학입시를 연상하기 쉽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이란 학교교육은 지식교육이 선행되는 사상(事象)이고 이러한 정신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먼저 가정교육부터 생각한다.

아침에 형식적이든지 말든지 부모 양친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반드시 깎듯하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고 부모는 “잘 다녀오너라”하고 또한 경건하게 답례해야 한다. 장난 삼아 “차 조심해 동무들하고 싸우지 마”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는 안 된다.

다녀와서도 부모에게 고하는 예를 올리게 하고 부모가 답례한다. 부모의 출근시간, 학생의 등교시간, 그리고 가족 상황이 각각 다 틀리지만은 그 가정의 환경 따라서 하나의 의례(儀禮)가 구성되어야 한다.

밥상을 대할 때는 반듯하게 조용하게 (경건한 것을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앉아서 꼭꼭 씹어서 정중하게 먹도록 하고 음식하는 것을 장난하는 것처럼 하지 말게 할 것이다.

직장에 근무하는 젊은이의 경우 높은 사람에게 공손히 존경하는 인사를 하는 것보다 아랫사람 더구나 수위같은 사람에게 더 공손히 인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옷을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필요이상 화려한 것도 금해야 한다. 얼굴에 글씨 쓰고 그림 그리는 야만인 같은 짓은 절대 금해야 한다. 스스로의 몸을 존경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요즈음 처녀 아이들이 배짱 드러내고 엉덩이 흔드는 도서지역의 미개인 스타일 따르는 것 자기집 아이는 절대 못하도록 집에서 엄금할 것이다.

혼전(婚前)에 이 남자 저 남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도 당대에 유행하는 사조 속의 행동인데 이것 다 눈에 안 보이는 가정의 교육 속에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근본이 옛날 정자(程子)의 생각처럼 경(敬)의 여부로서 생겨나는 파생(派生)적 사실이다. 경의 성품과 경의 행동이 몸에 배도록 말로서가 아니라 부모가 행동으로 시범이 되어야 한다.

3. 오늘의 시대상과 경사상

오늘의 시대상, 비단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로 학문과 문화전반이 이상과 현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정신과 육체의 양축(兩軸)이 같은 보조로 굴러가지 않고 한쪽으로 넘어져가는 현상인 것을 만인이 공감할 것이다.

어느 편으로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역학(易學)적으로 말해서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상태가 아니다.

바른 지구세계를 정립(定立)시키고 바르게 사는 인류, 바르게 사는 국가 사회를 만들지 않은 지체부자유(地體不自由)의 세계의 장래는 파멸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대순사상이 제시하는 3요체 가운데도 성(誠)과 함께 경(敬)사상은 절실한 에너지원(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I. 결어(結語)

오늘의 시대상에서 정신문화 그 가운데도 윤리적으로 소요되는 많은 과제가 있지만 대순 3요체의 경(敬) 사상은 인간존립의 기본태도로서 이만큼 절실하게 와 닿는 과제도 드물 것이다.

당금의 과학문명은 옛날 인류가 상상했던 신(神)의 영역을 초월한 듯도 한데 정신적인 인문문화는 도로 원시화해서 쇠퇴하여 가는 위구(危懼)를 느끼리만큼 하고 그 가운데도 윤리 도덕과 예의 염치는 퇴화 퇴영하는 것이 당대의 현상이다.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며 또한 종교인의 책무(責務)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국사대사전 한국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 태극출판사
詳解漢和대사전 일본 富山房
漢字大典 교육서관
四書五經 한국출판공사
불교대사전 보련각
經學隊杖 최고운, 高麗大學校 출판부
退溪全書 成均大 출판부
東經大全 천도교총부
천도교 교리와 사상 천도교총부
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진리회교무부
人物로 본 한국사 조선일보사
大巡思想論叢 1~9집 대순사상연구원
支那哲學史綱 일본 河出書房
韓國儒學史 崔相允
相生論理學 安鍾沄 대진대학출판부
其他서적 및 논문집 다수